

“맛의 비법은 싱싱한 재료와 불의 조절에 있습니다”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향원(Golden China)”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음식은 단연 짜장면, 짬뽕 그리고 탕수육이다. 이 세 가지 음식은 어린 시절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였고, 어른이 된 지금도 언제나 후각과 미각 그리고 눈을 황홀하게 만드는 요물(?)이다. 그래서 이들 음식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면 맛보지 않은 그 식당의 어떤 종류의 음식맛에도 신뢰가 간다.

터스틴에 위치한 ‘향원’은 바로 그런 중국음식점이다. 이미 입소문이 자자해서 ‘향원’에 대해 증언 부연하는 것이 오히려 구차할 지경이다.

‘향원’에서는 MSG를 사용하지 않는다. MSG를 넣지 않고 음식맛을, 그것도 중국음식맛을 낸다고 하니 믿기 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향원’의 주방에서는 MSG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맛을 낼까?’ 궁급해진다. 비결은 싱싱한 천연의 음식재료와 불의 세기에 있다고 ‘향원’의 사장님은 귀 쫑긋한다.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해서 재료가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시간만큼 조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느끼한 맛을 싫어 하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기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기름도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무해하다. ‘향원’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탕수육을 먹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깨끗한 기름에서 튀겨진 탕수육은 그 색이 밝은 노랑을 띠고 있어 눈으로 보기에도 깔끔하며, 한입 떠먹는 순간의 바삭함과 고소함은 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져서 입안을 황홀하게 한다.

모든 음식에 푸짐하게 들어있는 식재료는 맛을 위한 기본이다.

한국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 ‘향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다. 바로 ‘해물비빔짬뽕’과 ‘콩나물 짬뽕’ 그리고 ‘매운 하얀 짬뽕’이다. ‘향원’의 짬뽕이야 이미 그 맛이 정평이 나 있어서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세 짬뽕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가족들을 위해 짬뽕을 색다르게 조

리해 보았더니 가족들의 반응이 좋아 ‘향원’의 메뉴에 추가하여 보았다. 그랬더니 한 번 먹어 본 고객들이 그 맛에 반하여 정식 메뉴로 추가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제 마니아들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해물비빔짬뽕’은 이름 그대로 국물이 없이 해물을 비롯한 각종 재료를 비벼 먹는 짬뽕이며, ‘콩나물 짬뽕’은 전통적인 짬뽕에 콩나물을 넣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짬뽕으로 해장용으로도 제격이다. ‘하얀 매운 짬뽕’은 할라피뇨로 매운맛을 낸 국물이 맑은 짬뽕이다. 매운맛 마니아라면 지금 바로 ‘향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면 큰 만족감을 가지고 문을 나설 것이 분명하다.

특히 얼마 전 메뉴에 추가한 중국냉면도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향원’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모임을 즐길 수 있는 단체석도 잘 갖추어져 있다. 12명, 24명,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은 물론 홀과 분리된 공간에 40여 명의 단체석이 마련되어 있어 교회나 단체, 가족 모임의 장소로도 좋다.

화요일-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9시까지 문을 연다. 월요일은 휴무이다.

- ▶ 문의: (714) 838-0212/0438
- ▶ 주소: 1046 Walnut Ave., Tustin, CA 92780

LA한국문화원, ‘Alegria’ 한국음악과 다양한 재즈와의 만남 공연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 이하 문화원)이 2019 공연작품 공모전 「2019 ARI Project」 다섯 번째 무대로 ‘켈리 최 & 체스톤디 프로젝트’와 함께 11일(목) 저녁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알레그리아’ 퓨전 재즈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알레그리아’ 공연은 세 가지 재즈 장르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미국에서 1960년대 큰 인기를 끈 브라질 재즈 음악인 ‘The Girl from Ipanema’를 시작으로 장필순의 ‘어느새’,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등의 한국 팝 음악을 브라질 재즈와 리듬으로 새

롭게 편곡한 버전을 들려준다. 이외에도 브라질 음악 메들리 등도 함께한다.

다음으로 재즈의 본고장 미국 재즈로, 한국인들도 크게 사랑하는 재즈곡인 ‘Autumn Leaves’를 시작으로, 한국 민요인 ‘한오백년’을 미디엄 템포 스윙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주며, 정통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odd-meter(변박자: 흔하게 사용되는 세 박자, 네 박자 곡이 아닌 박자를 가리킴) 곡들도 들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재즈곡인 ‘Fly Me to the Moon’을 변박자인 4분의 7 박자로 새롭게 편곡해서 들려준다. 이외에도 재즈 발라드로 편곡한 ‘밀양 아

리랑’, 그리고 펑크 재즈로 편곡한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라틴 재즈곡 중 가장 유명한 ‘오에 꼬모바’를 시작으로, 페루의 업 템포 리듬인 페스테호로 새롭게 편곡한 해바라기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라틴 볼레로 고전 ‘베사메 무쵸’와 한국 가요 ‘봄날은 간다’를 믹스한 새로운 버전을 들을 수 있고, 쿠바 리듬인 단손으로 편곡한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도 연주된다.

박위진 문화원장은 “미주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에서 다양한 시도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음악을 다양한 장르의 재즈 음악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미국에서 한류의 저변 확대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한다.

- ▶ 예약 및 문의: (323) 936-3015
- www.kccla.org

치아이식 전문 김건중 종합치과

www.timkimdental.com

여름방학 특별할인

8월 31일까지

1

교정 치료 시작시 \$700할인
및
Panx, Ceph, X-ray 포함

2

임플란트 Free Consultation
Panx, 3D CT포함
(비보험자에 한함)

3

사랑니 발치 할인
비보험 환자시
Panx, 3D CT 포함
(난발치 케이스도 국소마취로 가능)

김건중 종합치과
Keon Jung Kim Dental Corp.

교정치과 전문 일반·미용치과 전문

Jin Kim, DDS, MS Jeon Hara, DDS, MS, Ph.D.
Columbia 명문대 졸업 Jeong Eun Kim, DDS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Soyoun Jenny Min, DDS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진료 과목

치아이식 | 구강외과 | 틀니/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 레이저 치료
일반치과 | 소아치과 | 악관절치과 | 교정치과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의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김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성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 치아이식과 임상과정
- 미 치아이식학회 (AAD, AO) 회원
- ADA, CDA, ODDS, KADA 회원

■ 터스틴 949.679.6000 ■ 샌디에고 760.479.9876